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도덕적 정서에 관한 개념화 연구 : 긍정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정서의 탐색

김경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정서의 특징을 규명하여 도덕적 정서를 개념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 대학생 남여 166명과 독일 대학생 남여 143명, 총 307명이었다. 도덕적 정서를 파악하기 위하여 3개의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구조화된 면접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얻어진 자료는 내용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되었다. 결과, 도덕적 정서에서 한국과 독일대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성차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한국대학생들은 규범적이고 가족에 지향된 집단주의적 성향을, 독일대학생들은 도구적(구체적)이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도덕적 정서에는 개인의 도덕적 표준을 위반하는 약속불이행, 규범위배, 신뢰위배에 기인하는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당위성의 특징을 갖는 존경과 신뢰와 같은 긍정적 정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도덕적 정서의 개념화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도덕적 정서, 정서 패러다임, 존경, 양심, 죄책감

도덕적 정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사건과 그와 관련되어 생기는 인지적 정서에 근거하는 고등 수준의 정서라고 정의된다(Buck, 1999; Hoffman, 1998; Walker& Pitts, 1998).

Haidt(2001)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 도덕적 직관을 구별하는 가운데, 도덕적 정서를 인지적 정서라고 기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판단은 문화나 하위 문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워지는 일련의 덕목에

근거한 행위, 또는 ‘선 대 악’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되며, 도덕적 직관(moral intuition)은 감정적 유인가(affective valence)를 포함한 도덕적 판단을 의식할 때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서가 고등 수준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서는 선천적이고 개인적이며, 양극화되고 편견적인 조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독일 Tübingen 대학교 심리학과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에 협조해주신 독일 Tübingen 대학교 심리학과의 Peter Day 박사와 교육심리학과의 Josef Held 교수께 감사드린다.

교신저자: 김경희, E-mail: mkhkim@yonsei.ac.kr

인지를 왜곡시키거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덕적 특징을 가지며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부도덕한 행동을 제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의사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Haidt, 2001). 도덕적 정서를 고등 수준의 인지적 정서라고 볼 때, 인지와 정서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지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인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부터 논의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인지과정은 정서의 발생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심리학에서 인지적 평가이론의 창시자인 Arnold(1960)에 의하면, 정서과정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지각되고 평가가 뒤따르며, 그 다음에 어떤 정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Arnold의 이중적 노선을 보완하여 Lazarus(1971)는 인지가 정서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지적 평가 결과 정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관점은 Zajonc(1980)의 잘 알려진 “호오에는 추론이 필요없다”(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Zajonc에 의하면 정서와 인지는 독립적 체계이며, 정서는 인지적 과정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점은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어의적(semantic)문제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Leventhal & Scherer, 1987).

Lazarus는 논쟁 이후 그의 인지적 평가 개념을 학습된 평가에만 국한시켜서 그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그는 인지적 성소를 정서를 야기시키는 사건의 의미로 가정했다.

Hoffman(1983)이 도덕적 정서를 인간 행위의 가장 강한 동기유발자라고 시사한 것과 유사하게, Smith, Webster, Parrott 및 Eyre(2002)는 도덕적 정서란 도덕적 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정서가 책략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정서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는 주장은(Frank, 1988) 정서에 관한 대뇌피질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김경희, 2004;

Panksepp, 1998).

정서의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정서의 이상화된 모델, 곧 패러다임을 충동적 정서, 갈등적 정서, 초월적 정서로 구분하고 있으며(Averill, 1980a), 최근 김경희(2004)는 인류학, 사회-, 문화-, 진화론적 심리학의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도덕적 정서를 정서의 패러다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인류학에서 도덕적 정서는 지역사회가 정해놓은 도덕적 체계에 따른 반응으로서 정서를 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충동적 정서는 정서의 본능이론과 유사하다. McDougall(1948)이 본능은 개인의 독특한 경험의 질에 따라 나타난다고 한 것을 Averill(1980a)은 이를 본능 대신 충동적 정서로 보았다. 갈등적 정서는 Freud 이론에서 전환반응(conversion reaction)과 비슷한 것으로, 개인이 규범이나 표준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타협이라는 변형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초월적 정서는 인지 구조가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사고의 붕괴를 의미한다. 인지구조는 자극의 과부하, 감각박탈, 명상, 뇌손상, 또는 내적 심리적 갈등과 같은 이유로 붕괴되거나 비조직화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자아를 초월하고, 또 산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 정서라고 명명되었다. 그런데 인지적 조직의 붕괴는 신비한 경험이나 불교의 열반상태에서 보다는 불안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Averill, 1980a). 네 가지 정서는 사태에 적응적인 책략이며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한다.

정서이론가들은 정서를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Averill, 1980b), 기본적, 비기본적 정서로(Izard, 1991; Draghi-Lorenz, Reddy, & Costall, 2001)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정서와 비기본정서의 원인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공통되어 있다고 한다(Izard, 1991; Wallbott & Scherer, 1995).

긍정적 정서에는 기쁨, 사랑, 흥미, 즐거움, 존경심, 신뢰 등이, 부정적 정서에는 분노, 슬

픔, 질투, 죄책감, 수치심 등이 있으며, 기본 정서로는 기쁨, 분노, 슬픔, 사랑, 즐거움 등이, 비기본정서로 존경, 경외, 신뢰, 죄책감 등으로 구분된다(김경희, 2004). 그러나 Izard(1991)는 죄책감을 기본 정서에 포함시킨 유일한 학자이다. 기본 대 비기본정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중이다.

정서패러다임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데, 지금까지 수행된 도덕적 정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부정적 정서인 죄책감, 수치심을 다룬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에 관한 개념과 정의(Ausubel, 1955; Darwin, 1872/1965; Erikson, 1950; Ferguson & Stegge, 1998; Freud, 1930/1961; Hogan & Cheek, 1983; Lewis, 1984; Piers & Singer, 1958; Roseman, 1984; Tangney, 1990; Weiner, 1995), 죄책감과 수치심 간의 차이(Ferguson, Stegge, Miller, & Olsen, 1999; Lewis, 1984; Niedenthal, Tangney & Gavinski, 1994; Tangney, 1998), 발달(Ferguson et al., 1998; 김경희, 1996, 1997, 2002), 측정 연구(Kugler & Jones, 1992; Mosher, 1966, 1968, 1979; Moulton, Berstein, Liberty, & Altucher, 1966; Sears, Maccoby, & Levin, 1957; Tangney, 1990, 1992), 그리고 비행과 정신장애(Lewis, 1984; 류설영, 1999; 심종은과 이영호, 2000) 등이다.

그러나 도덕적 정서가운데 존경, 신뢰와 같은 긍정적 정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Smith와 그의 동료들이 정의한 바와 같이, 도덕적 정서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정서를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연구 경향과 문제점, 그리고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일련의 연구(1996, 1997, 2000, 2002)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Lazarus의 노선에 동조하는 본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Lazarus는 정서를 인지적 평가에 따른 감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정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1)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도덕적 정서의 특징 및 차이 여부와, 2)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문화 내 차이 곧 성차를 파악하며, 3) 1)과 2)의 결과를 기초로 도덕적 정서를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화’자체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화 간에 차이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질을 가지고, 질적 연구에 지향되어 있다.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남여 대학생 166명(남학생 83명, 여학생 83명)과 독일의 남여 대학생(남학생 41명, 여학생 102명)으로 총 309명이다. 한국 대학생들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S대학교와 Y대학교의 인문, 사회계열 학생으로 심리학개론 교양 강의에서 236명이 표집되었는데, 남학생들 가운데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 등과, 그리고 질문지에 1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시키고 166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남여대학생 수가 같은 것은 우연이었다. 한국과 동질적인 조건으로 독일의 조사대상자는 독일 Tübingen에 소재한 Tübingen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강의를 수강하는 심리학과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는 사회과학계열의 순수한 독일 대학생을 표집하였다. 처음에는 198명을 표집했으나 한국의 조사대상자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143명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했다. 평균연령은 한국 남학생은 23세, 한국 여학생은 21세, 그리고 독일 남학생은 25세, 독일 여학생은 23세였다.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평균 연령에서 나타난 2세의 차이는 한국과 독일의 학제의 연한차이이다. 독일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차이는 사회계열을 전공하는 남여학생의 비율이 여자가 70% 이상으로 여학생 수가 많은데 기인한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면접형 질문지로서 도덕적 정서를 탐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던 Tangney(1990, 1992)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Kohlberg(1976)의 A와 B Form, Eckenberger와 Kim(1976), Mosher(1979, 1988), 김경희(2002)가 제작했던 질문지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한국과 독일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개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 내용은 한국어와 독일어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독일어는 본 연구자가 독일 교수와 E-mail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완성하였다. 이 이야기들은 도덕적 본질과 도덕적 정서를 탐색해낼 수 있는 상황들, 즉 거짓말과 도둑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이야기들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심층적인 질문을 추가시켰다(결과 참조).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 1> 실업자인 두 형제가 다른 도시로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형은 상점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동생은 그 도시 유력 인사인 노인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여 수술비조로 돈을 챙겨서 형과 함께 도망친 상황.

<이야기 2>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면, 여름 방학 캠핑에 참가를 허락받은 아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캠핑가기 며칠 전 아버지가 친구들과 뉘시 여행 간다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들은 캠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청을 거절해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이야기 3> 중학생인 딸이 어머니의 약속을 받고 다음 주에 열릴 유명한 팝 콘서트에 가기 위해 돈을 모았는데, 어머니가 콘서트에 가는

것보다는 새 교복을 장만하는 데 모은 돈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서, 딸은 실망했지만 모은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엄마 몰래 남은 돈으로 팝콘서트에 간 후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언니에게 사실을 얘기한 상황.

질차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에서는 2003년 9월에, 독일에서는 2003년 2학기 초인 10월에 본 연구자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한국의 S대에서는 교양 심리학 시간에 담당교수인 심리학 교수가 직접, Y대에서는 교양 과목의 협조 하에 본 연구자가 직접 수집했다. 독일에서는 2번에 걸쳐 독일 교수의 협조를 얻어서 본 연구자가 함께 수업 시간에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한국, 독일 모두 80~90분이었다.

분석 방법

질문지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내용 분석은 한국 자료는 본 연구자가 다른 평정자(전공 교수)가, 독일 자료는 본 연구자와 독일 심리학 교수가 김경희(2002) Tangney(1990, 1992)의 분류에 근거해서 범주화 작업을 했다.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토론을 통해서 일치점을 찾아 범주화 했으며, 두 사람 간의 일치도는 95% 이상이었다.

내용분석한 결과 각 범주에 반응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이를 문화 간(한국 대 독일), 그리고 문화 내(성차)의 차이 여부는 카이제곱(X²)으로 처리하였다.

결과

세 가지 이야기에 관련된 심층적 질문 내용을 내용분석하여 빈도, 백분율, 차이 검증한 결과를 문화간(한국 대 독일), 성별로 표 1, 2, 3에 제시하였다.

이야기 1 : 속이는 것과 도둑질 상황

이야기 1에서는 1) 속이는 것과 도둑질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지, 2) 노인을 죽이는 것이 왜 나쁜지, 3) 양심은 무엇인지, 4) 양심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5)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다.

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그려했으며, 도둑질 행위가 더 나쁜 것으로 보는 비율도 있었다. 이에 비해서 독일 대학생들은 속이는 것을 더 나쁜 행위로 보는 것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적은 비율이었으며, 도둑질에 반응한 사람은 없었고 둘 다 나쁘다고 반응한 비율이 40%에 이르렀다.

2. 노인을 속이는 것이 나쁜 이유에 대한 반

표1. 이야기 1에 나타난 문화간 및 성별에 따른 내용분석결과

범주	문화간 성별	한국(n=166)		독일(n=143)		χ^2
		n	%	n	%	
1 더 나쁜 행위	속이는 것	55(66.2)	67(80.7)	23(56.1)	62(60.8)	59.56
	도둑질	16(19.3)	13(15.7)	0 (0.0)	0 (0.0)	
	둘 다	2(14.5)	3 (3.6)	18(43.9)	40(39.2)	
	χ^2	6.69		.27		
2 노인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쁜 이유	신뢰 위배	61(73.4)	67(80.8)	30(73.2)	93(91.2)	17.91
	약자에 대한 피해	6 (7.2)	4 (4.8)	8(19.5)	8 (7.8)	
	양심위배(죄책감)	16(19.3)	12(14.4)	3 (7.3)	1 (1.0)	
	χ^2	1.27		9.27		
3 양심의 정의	사회적 도덕 기준	19(22.9)	11(13.2)	22(53.7)	54(52.9)	44.15
	인간본성에 내재된 법	49(59.0)	56(67.5)	16(39.0)	42(41.2)	
	잘못했을 때의 죄책감	15(18.1)	16(19.3)	3 (7.3)	6 (5.9)	
	χ^2	2.63		.13		
4 양심의 획득 방법	교육	46(55.4)	37(44.6)	26(63.4)	80(78.4)	21.72
	경험	29(34.9)	34(42.2)	4(34.1)	19(18.6)	
	본성	8 (9.7)	11(13.2)	1 (2.4)	3 (3.0)	
	χ^2	4.21		5.19		
5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	사회적 규범(윤리 등)	56(67.4)	53(63.8)	13(31.7)	27(26.4)	69.15
	교육	16(19.3)	13(15.7)	20(48.8)	58(56.8)	
	경험	11(13.3)	17(20.5)	8(19.5)	17(16.8)	
	χ^2	2.65		.77		

$p<.05$ $p<.001$

1. 속이는 것과 도둑질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더 나쁜가의 물음에 대한 반응에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chi^2=59.56$, $p<0.01$), 문화내에서 성차는 한국에서만 나타났다($\chi^2=6.89$, $p<.05$).

한국 대학생들은 속이는 것을 더 나쁜 행위

옹에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chi^2=17.91$, $p<.001$), 문화내에서 성차는 독일의 경우에만 나타났다($\chi^2=9.27$, $p<.05$). 즉 한국의 경우는 노인을 속이는 것의 나쁜 이유로 신뢰위배, 그리고 양심위배(죄책감)의 순으로 반응한 데 비해서 독일 대학생들

은 신뢰위배, 약자에 대한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신뢰위배로 반응했다.

3. 양심이란 무엇인가(양심의 정의)와, 양심은 어떻게 획득되며,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준거의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는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 그러나 각 문화내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양심의 정의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법으로 정의를 내린 비율이 많았으며, 독일 대학생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정의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간 본성에 내재된 법으로 정의했다. 양심을 죄책감이라고 정의한 비율은 한국 대학생들이 독일 대학생들보다 의미있게 많았다($\chi^2=44.15$, $p<.001$).

4. 양심이 획득되는 방법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교육과 경험의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독일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의미있게 많은 비율이 교육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chi^2=21.72$, $p<.001$). 독일 대학생들은 경험에 의한 것으로 반응한 것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적었으며, 독일 여학생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로서 한국 대학생들은 사회적 규범을, 독일 대학생들은 교육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규범으로 반응했다. 한국 남학생은 사회적 규범 다음으로 교육, 경험의 순으로, 그리고 여학생은 경험, 교육의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9.15$, $p<.001$).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에 의미있는 성차는 없었다.

표2. 이야기 2에 나타난 문화간 및 성별에 따른 내용분석 결과

	문화간	한국(n=166)		독일(n=143)		χ^2	
		남(n=83)	여(n=83)	남(n=41)	여(n=102)		
	성별	n	%	n	%	n	%
	훈육방식						
1	거절해야 한다	64(77.1)	68(81.9)	39(95.1)	100(98.0)		
부탁 거절	거절하면 안 된다	19(22.9)	15(18.1)	2 (4.9)	2 (2.0)	22.06	
여부	χ^2	.59		.92			
2	신뢰위배	27(42.2)	(n=64) 1)(n=68)	34(54.4)	(n=39)	8(20.5)	(n=100)
거절 이유	자신이 모은 돈	23(38.9)		18(26.5)		26(66.7)	40(40.0)
	목표 관찰	14(21.9)		13(19.1)		5(12.8)	54(54.0)
	χ^2		2.09			5.52	21.43
3	신뢰유지	64(77.1)	65(78.3)	33(80.4)	98(96.1)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사회질서유지	13(15.7)	8 (9.7)	4 (9.8)	1 (1.0)		11.74
	죄책감	6 (7.2)	10 (12.)	4 (9.8)	3 (2.9)		
	χ^2		2.20		9.99		
4	존경(효)	46(55.4)	45(54.2)	28(68.3)	72(70.4)		
아들 - 아버지 관계	신뢰	39(36.2)	27(32.5)	12(27.3)	28(27.5)		13.40
	사랑	8 (8.4)	11(13.3)	1 (2.4)	2 (2.1)		
	χ^2		2.59		5.13		

$p<.01$ $p<.001$

1) n은 부탁 거절한 반응 수

이야기 2. 아들이 약속을 어긴 아버지의 무리한 부탁에 직면한 상황

이야기 2에서는 1) 아버지 부탁을 거절해야 할지 여부와, 2) 왜 거절해야 하는지, 3)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 4) 아들-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1. 아들과의 약속을 어긴 아버지의 무리한 부탁에 대한 거절 여부와 거절 이유에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차는 없었다.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 대다수가 거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는 거절하면 안된다는 반응도 남녀 각각 22.9%, 18.1%로 나타났으나, 독일 학생들은 대다수가 거절해야 하는 것으로 반응했다($\chi^2=22.08$, $p<.001$).

2.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로서 한국 대학생들은 ‘아버지의 신뢰위배(약속불이행)’로 반응한 데 비해서, 독일 대학생들은 ‘자기가 모은 돈’이라는 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chi^2=21.43$, $p<.001$).

표3. 이야기 3에 나타난 문화간 및 성별에 따른 내용분석 결과

범주	문화간		한국(n=166)		독일(n=143)		χ^2
	문화내	문화외	남(n=83)	여(n=83)	남(n=41)	여(n=102)	
1 사실여부	말해야 함		12(14.5)	20(24.0)	7(17.1)	8(7.8)	
	말하지 말아야 함		71(85.5)	63(76.0)	34(82.9)	94(92.2)	14.60
	χ^2		2.48		2.65		
2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가족의 화목		2) ²⁾ (n=71)	(n=63)	(n=34)	(n=84)	
	자매간 신뢰		25(35.2)	33(50.7)	4(11.8)	12(12.8)	
	동생이 스스로		18(25.4)	9(14.3)	9(26.5)	43(45.7)	
	말해야함		15(21.1)	10(15.9)	12(35.2)	30(31.9)	37.00
	별로 나쁜일이 아님		13(18.3)	11(17.5)	9(26.5)	9 (9.6)	
	χ^2		5.57		7.46		
3 딸-어머니 관계	존경(효)		31(37.3)	44(53.0)	15(36.6)	60(58.8)	
	신뢰		34(41.0)	35(42.2)	25(61.0)	36(35.3)	
	사랑		18(21.7)	4 (4.8)	1 (2.4)	6 (5.9)	40.93
	χ^2		11.47		8.00		
	$p<.05$	$p<.01$	$p<.001$				

2) n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 반응 수

3.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 모두 ‘신뢰 유지’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 남학생은 사회 질서유지, 죄책감의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죄책감, 사회 질서유지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독일 여학생들은 신뢰유지에 반응한 비율이 지배적이었음은 유의할만하다. 독일의 경우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9.99$, $p<.01$).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의미있는 것인이다($\chi^2=11.74$, $p<.01$).

4.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chi^2=13.40$, $p<.001$). 즉 독일 남여 대학생 모두가 한국 대학생들보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효)을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으며, 한국 대학생들은 독일 대학생들보다 사랑을 중요한 가치로 반응한 비율이 더 많았는데,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의미있는 것인이다($\chi^2=13.40$, $p<.01$).

이야기 3. 어머니에게 거짓말한 동생이 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상황.

이야기 3에서는 1) 동생이 거짓말한 사실을 말해야 할지 여부와, 2) 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3) 딸-어머니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 동생이 거짓말한 사실을 들은 언니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여부를 알아 본 결과에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chi^2=4.60$, $p<.05$),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한국과 독일 대학생 모두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응했다. 그런데, 한국 여학생은 한국 남학생보다, 독일 남학생이 독일 여학생보다 말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2.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한국 대학생들은 ‘가족의 화목 유지’ 비율을 가

장 많이 나타낸 데 비해서, 독일 대학생들은 동생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것과(남학생), 자매 간 신뢰(여학생)가 각각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차이는 의미있는 것이다($\chi^2=37.00$, $p<.001$).

3.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나타난 반응에 의미있는 문화간 차이($\chi^2=40.93$, $p<.001$)와 성차가 나타났다(한국의 경우 $\chi^2=11.47$, $p<.01$; 독일의 경우 $\chi^2=8.00$, $p<.05$).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한국과 독일의 남학생들은 신뢰, 존경, 사랑의 순으로,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여학생들은 존경, 신뢰, 사랑의 순으로 반응했다. 흥미있는 것은 한국 남학생들은 한국의 여학생들과 독일의 남녀 대학생들보다 사랑을 거론한 비율이 의미있게 높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두 문화권인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들 간에 이야기 1과 같은 사회적 상황과 이야기 2, 3과 같은 가족 간의 상황 등에서 도덕적 정서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성차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도덕적 정서에 대한 문화간 특징과 차이 여부를 파악하고, 문화내 조건으로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성차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한국과 독일 대학생 간에 의미있는 문화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차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성차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의 경우 모두 속이는 것과 도둑질 중의 더 나쁜 행위를 보는 가치와, 딸과 어머니 관계에 대한 가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이외에 속이는 것의 나쁜 이유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차를 보였다.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속이는 것과 도둑질한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 모두 속이는 것을 더 나쁜 행위로 보았

으나, 한국 대학생들은 속이는 행위 다음으로 도둑질을 꼽았다. 그러나, 독일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서 둘 다 나쁜 행위로 보는 경향이 더 컸다. 또한 노인을 속이는 것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들은 노인을 속이는 것은 신뢰위배와 양심위배 때문에 나쁜 행위로 간주한 반면에, 독일 대학생들은 신뢰 위배 이외에 약자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의 이러한 현상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김경희, 1996, 2002; Izard, 1991)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특징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규범지향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비해서, 독일 대학생들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심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한국 대학생들은 양심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법으로 정의하거나 잘못했을 때의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독일 대학생들보다 많았다. 이에 반해서 많은 독일 대학생들은 양심을 사회적 도덕 기준으로 생각했고, 인간 본성의 내재된 법과 죄책감으로 보는 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적었다. 한국 대학생들의 양심 정의는 흥미있게도 양심을 선형적(*a priori*)으로 존재한다고 한 Kant의 정의(1785/1999, p.30)와 같은 것으로서 ‘양심’ 정의에 관한 한 한국 대학생들은 독일 대학생들 보다 더 독일적인 것 같다.

독일 대학생들은 ‘도구적’인 경향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은 양심이 어떻게 획득되며, 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독일 대학생들은 양심을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했으나, 한국 대학생들은 교육과 경험에 의한 것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일관된 현상은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에서도 볼 수 있다. 독일 대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사회적 규범(윤리)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러한 성향은 한국 간호원과 독일 간호원 각 30명씩을 Kohlberg의 A-Form을 사용해서 수행했던 Eckensberger와

Kim(1976)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즉 한국 간호원들의 도덕적 가치는 전통적인 규범적(good-boy orientation)인데 비해서 독일 간호원들은 공리적, 계약적인데 지향되었다.

양심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한국 학생들 상당수가 죄책감으로 정의한 것은 이전 연구자들(Ausuber, 1955; 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rnberg, 1983; Gehm & Scherer, 1988; Niedenthal et al., 1994; Tangney, 1992; Smith et al., 2002)의 정의와 일치된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부수적으로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확인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대학생들의 ‘양심’에 대한 생각은 Hume(1777/1975)이 시사했듯이 역사적으로 서구의 사고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르다고 느끼는 것은 그르다는 보편적 개념(general notion)이 오늘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정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도덕적 가치는 문화적으로 수용된 표준과 결과 뿐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옳거나 그르게 경험하는 정도에 의존한다고 한 Camacho, Higgins, 및 Luger(2003)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죄책감에 대한 양상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김경희(2002)의 연구와 일관성을 보였으나, 이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더 성숙한 청년기의 대학생들의 발달 현상 때문이라고 추론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다는 Haan (1978)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Turiel(1975)과 Kim(1984)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도덕적 정서는 부모의 훈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할 때 부모가 어떻게 대했을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훈육 방식(parental control techniques)은 Eckensberger와 Kim(1976), Kim(1984), Smith(1987)에 기초한 다섯 가지 방식이다.

어머니 훈육 방식에서 한국과 독일 간에,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성차를 보였다($\chi^2=9.37$, $p<.05$). 즉 한국 어머니들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귀납적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 아들에게는 충고를 하는데 비해서 딸에게는 강압적-물리적(power-assertion) 방법을 사용했다. 독일의 경우 어머니들은 아들, 딸 구별없이 모두에게 충고(advice)를, 그 다음으로는 애정철회(love-withdrawal)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어머니들의 훈육 방식과 의미 있게 다른 것이다($\chi^2=67.92$, $p<.001$).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범을 중시한다는 결과를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엄격한 표준을 적용시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산물로 추론한 연구 결과 (김경희, 2002; Thoma & Rest, 1999; Turiel, 1975)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훈육방식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독일 남학생과 독일 여학생 간에 한국의 경우보다 도덕적 정서를 설명해주는 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만으로 도덕적 정서와 부모의 훈육 방식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는 힘들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들과의 약속을 어긴 아버지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독일 대학생들은 압도적으로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데 비해서, 한국 대학생들은 아버지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독일 대학생들보다 의미있게 많았다. 거절하는 이유를 귀인시킨 결과에서도 많은 한국 대학생들은 아버지의 신뢰 위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목표를 관찰하기 위한 생각도 독일 대학생들보다 의미있게 많았다. 즉, 독일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과는 달리 자기의 힘으로 모은 ‘자신의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마땅하게 보았다. 한국 대학생들은 전통적이며 규범적이고 독일 대학생들은 공리적으로 지향되어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백혜정과 이순복, 2002, 2003; Eckensberger-Kim, 1976;

Eckensberger, 1993).

심층 질문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독일 대학생들은 신뢰 유지를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은 한국 대학생들이 독일 대학생들보다 많았다. 죄책감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문화내에서 한국 여학생과 독일 남학생이 각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심층적 질문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역시 한국과 독일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아들-아버지 간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결같이 존경심, 신뢰, 사랑 등 ‘정서’를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딸-어머니 관계에서도 그려했다. 기대와는 달리 독일 대학생들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들보다 존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 다음이 신뢰의 순으로 생각한 데 비해서 한국 대학생들은 독일 대학생들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아버지의 부탁에 대한 거절 여부, 거절 귀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및 아들-아버지 관계에서 독일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서 일관성 있게 ‘신뢰’에 지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동생이 언니에게 사실을 고백한 상황에서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한국 대학생들은 가족의 화목을 우선으로 생각한 데 비해서, 독일 대학생들은 자매간 신뢰를, 그리고 동생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 간의 차이는 한국 문화를 포함한 동양 문화권이 전통적, 가족 중심적, 집단 주의적(collectivism)이고, 서구가 개인주의적이라는 주장(Triandis, 1989)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에 관해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간, 그리고 문화내의 성차를 보인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남학생들은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뢰, 존경, 사랑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여학생들은 존경과 신뢰를 중

요한 가치로 꼽았다. 이러한 한국 대학생들의 경향은 독일 대학생들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 남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신뢰를, 독일 여학생들은 존경을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이 외에 한국 대학생들은 독일 대학생들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정서를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한국의 경우에 남학생들은 딸-어머니 관계에서 여학생들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아들-아버지 관계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사랑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흥미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으로 한국의 대학생 모두 이성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데서 오는 ‘사랑의 갈구’의 표시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아버지’, ‘딸-어머니’의 관계에서 나타난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간의 차이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Triandis(1987), Chang과 Askawa(2003)의 주장과 일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존경과 신뢰,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도덕적 정서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한다. 신뢰는 Erikson(1950)의 발달 단계에서 다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검증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Smith와 그의 동료들(2002)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도덕적 정서가 행위를 결정한다고 볼 때, 이러한 긍정적인 도덕적 정서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거짓말 대 도둑질,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 상황에서 나타난 도덕적 정서에서 한국과 독일 대학생들 간에는 확실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규범적, 전통적이고 가족에 지향된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독일 대학생들은 도구적, 구체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부분적으로 나타난 성차에 대한 규명은 추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문화간 차이와 성차는 ‘그 무엇’(unknown) 요인 또는 다요인의 효과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자는 ‘도덕적 정서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본질적으로 개

인의 도덕적인 표준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김경희, 2002) 뿐 아니라, 도덕적 표준을 위반하기 전에 당위성의 성질을 갖고, 더 나아가서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 하는 존경과 신뢰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패러다임’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도덕적 정서는 존경과 신뢰와 같은 긍정적 정서와 죄책감 같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 패러다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희 (1976). 한국 아동의 도덕관 발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1, 9-25.
- 김경희 (1996).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14.
- 김경희 (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4-24.
- 김경희 (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81-93.
-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 김경희 (2004). 정서심리학. 박영사.
- 류설영 (1998).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정, 이순묵 (2002). 학교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판단 :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 57-79.
- 백혜정, 이순목 (2003).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한 도덕적 털레마에 대한 판단 및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35-153.
- 심종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 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Ausubel, D. B. (1955).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guilt in the socializing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7, 378-390.
- Averill, J. R. (1980a). A constructivist view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 Averill, J. R. (1980b). On the paucity of positive emotions. In K. Blankstein, P. Pliner, & J. Polivy(Eds.), *Advances in the study of communication and affect : Assessment and modification of emotional behavior*(Vol. 6). New York: Plenum.
- Baumeister, R. F., Stillwell, A. M., & Heatherton, T. F. (1994). Guilt : An interpersonal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15, 243-267.
- Ben-Ze'ev, A. (1997). Emotions and morality. *Journal of Value Inquiry*, 31, 195-212.
- Camacho, C. J., Higgins, E. T., & Luger, L. (2003). Moral value transfer from regularatory fit : What feels right is right and what feels wrong is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 498-510.
- Campos, J. J., Barrett, K. C., Lamb, M. E., Goldsmith, H. H., & Sternberg, C. (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 Infanc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 (4th. ed.). New York: Wiley.
- Chang, E. C., & Askawa, K.(2003). Cultural variations on optimistic and pessimistic bias for self versus an sibling : Is there evidence for self-enhancement in the West and for self-criticism in the East when the referent group is specifi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69-581.
- Colby, A. & Kohlberg, L. (1987a).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ement* (Vol. 1).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by, A. & Kohlberg, L. (1987b).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ement* (Vol. 2). Standard issue scoring manu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win, C. (1872/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 Rivera, J. (1984). The structure of emotional relationship.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Emotions, relations, and health. Beverly Hills, CA: Sage.
- Draghi-Lorenz, R., Reddy, V., & Costall, A. (2001). Rethinking the development of "nonbasic" emotions: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theories. *Development Review*, 21, 263-304.
- Eckensberger, L. H., & Kim, K. H. (1976). Moralisches Urteil bei deutschen- und koreanischen Kindern. *Psychologische Rundschau*, 77.
- Eckensberger, L. H. (1993). Morale als handlungsleitende normative Regelsysteme im Spiegel der kulturvergleichen Psychologie. In A. Thomas(Hrsg.), *Einführung in die kulturrelevanten psychologischen Disziplinen*. Göttingen: Hogrefe.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rguson, T. J., Stegge, H.,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 27-39.
- Folkman, S., Schafer, C., & Lazarus, R. S. (1979). Cognitive processes as mediators of stress and coping. In V. Hamilton & P. M. Warburton(Eds.), *Human stress and cognition* :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London: Wiley.
- Freud, S. (1930/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In J. Strachey (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Hogarth Press.
- Gehm, T. L., & Scherer, K. R. (1988). Relating situation evaluation to emotion differentiation : Nonmetric analysis of cross-cutural questionnaire data. In K. R. Scherer(Ed.), *Facets of emotion* : Recent research. Hillsdale, N. J.: Erlbaum.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an, N. (1978). Two moralities : Reasoning, action, development and ego regulation in white and black adolesc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286-305.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iggins, E. T., Idson, L. C., Freitas, A. L., Spiegel, S., & Molden, D. C. (2003). Transfer of value from

- f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40–1153.
-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al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7.
- Hoffman, M. 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New York: Wiley.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98) Varieties of empathy based guilt. In J. Bybee(Ed.), *Guilt and Children*, (Vol. 4), 91–112. New York: Academic Press.
- Hogan, R., & Cheek, J.(1983). Self-concepts, self-presentations, and moral judgement.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elf*(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Hume, D. (1777/1975).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Izard, C.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Plenum.
- Kant, I. (1785/1999).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Kochanska, G., Aksan, N., & Nichols, K. E. (2003). Maternal power assertion in discipline and moral discourse contexts : Commonalities ,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moral conduct and cogn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6), 949–963.
- Kugler, K., & Jones, W. H. (1992).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18–327.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1999). The cognition-emotion debate : A bit of history. In K. Scherer, A. Schorr & T. Johnstone(Eds.),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H. B. (1984). *Freud and modern psychology: The emotional basis of mental Illness*(Vol. 2). New York: Plenum.
- Lynd, H. M. (1958). *On shame and the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Harcourt Brace.
- McDougall, W. (1948). *An outline of psychology*. London: Methuen.
- Mosher, D. L. (1966). The

- development and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analysis of three measures of three aspects of guil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25-29.
- Mosher, D. L. (1968). Measurement of guilt in females by self-report inventor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690-695.
- Mosher, D. L. (197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guilt. In C. E. Izard(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Mosher, D. L. (1988). Revised Mosher Guilt Inventory. In C. M. Davis & W. L. Yarbors.(Eds.), *Sexuality-related measures : A compendium*. Lake Mills, LA: Graphic Publications.
- Moshman, D. (1995). The construction of moral rationality. *Human Development*. 38, 265-281.
- Moulton, R. W., Bernstein, E., Liberty, P. G., & Altucher, N. (1966). Patterning of parental affection and disciplinary dominaces as a determinant of guilt and sex 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356-363.
- Niedenthal, P. M., Tangney, J. P., & Gavinski, I. (1994). "If only I weren't" versus "If only I hadn't" : distinguishing shame and guilt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84-595.
- Panksepp, J.(1998). *Affective Neuroscience*. The foundation of human and animal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man, I. J. (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 A structural theory.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Emotions, relationship, and health*. Beberly Hills, CA: Sage.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 Harper & Row.
- Silverman, I. W. (2003). Gender differences in resistance to temptation : Theories and evidence. *Developmental Review*, 23, 219-259.
- Smith, R. H., Webster, J. M., Parrott, W. G., & Eyre, H. L. (2002). The role of public exposure in moral and nonmoral shame and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138-159.
- Smith, S. P. (1998). Parental control technique. *Journal of Family Issues*, 2, 155-176.
-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s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 Tangney, J. 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99-206.
- Tangney, J. P. (1998). How dose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Ed.), *Guilt and Children*,

- San Diego: Academic Press.
- Thoma, S. J., & Rest, J.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decision making and patterns of consolidation and transition in moral judgement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logy, 35(2)*, 323-334.
- Triandis, H. C. (1989). Cross-cultural studies i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amn(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37),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uriel, E. (1975)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 In D. Depalma & J. Foley(Ed.), *Moral development*. Hillsdale, N. J.: Erlbaum.
- Wallbott, H. G., & Scherer, K. R. (1995). Cultural determinants in experiencing shame and guilt. In J. P. Tagney & K. W. F i s h e r (E d s .) , *Self-conscious emotions :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2nd ed.). (1982). New York: Simom & Schuster.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Wolker, L. J., Pitts, R. C. (1998).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03- 419.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s, 35*, 151-175.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4. Vol.17, No. 2

Moral Emotion in Korean and German University Students : Toward the Conceptualization of Moral Emotion

Maria Kyu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moral emotion for the conceptualization and identify the cross-cultural differences, if any, between Korean and German university students. An open-ended questionnaire with three stories was administered to 166 Korean and 143 German students. The data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chi-squares were applied to examine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oral emotion. That is, Korean students were norm-, family-, collectivism- oriented, whereas German students showed instrumental and individualistic orientation. Gender differences were partly identified. It was confirmed that moral emotion would be an emotional paradigm that not only positive, but also negative emotions. Implications and issues of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moral emotion, emotional paradigm, respect, conscience, guilt